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특별 전문가 초청 세미나

말과 돈의 미래형(コトバとおカネの未来形)

강연자: 시마다 마사히코(島田雅彦)

일시: 2011.5.26(목) 14:30~16:30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120호

사회: 남기정

시마다 마사히코 선생님은 1961년도 도쿄에서 태어나셨고, 도쿄외대 러시아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재학중에 『부드러운 좌익을 위한 희유곡』이란 소설로 데뷔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작품이 번역되어 인기작가 반열에 올라있습니다. 현재는 호세대학 국제문학학부 교수로 계십니다. 수려한 용모로 문단의 귀공자로 불리시기도 하시고, 영화에도 출연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언어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언어일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언어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발표:

요즘 별로 일본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은 비교적 안전하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정부 관계자도 아니고 관광업계 사람도 아닙니다만, 여러분도 일본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후쿠시마에 다녀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사선에 오염된 인간은 아닙니다. 그럼 우선 후쿠시마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쿄에 있는 사람은 아주 나이브합니다. 이 지진의 직접적 피해는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도하게 예민해져있습니다. 재난지역에 떨어진 곳에 있다 보면 티비나 인터넷 등의 가공된 정보로 재난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심각한 현상을 전달하고 있지만 피해지역의 현실을 전달해주지는 않습니다. 재난당한 사람에게 동정을 하는 것과 피해자로 생활하는 것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실제 후쿠시마 사람을 만나보면 도쿄 사람이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방사선의 양과 반비례해서 경계의 정도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보다 도쿄에, 도쿄보다 파리에 있는 사람이 더 예민해져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생활하고 있고 덤덤하게 현실에 대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후쿠시마를 방문했을 때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도시도, 시골의 숲도 핑크색 전등이 들어온 것처럼 밝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무도 벚꽃 구경을 하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봄인데 자세히 보면 비일상적입니다. 우선 벚꽃구경을 하지 않는 거리 그것은 너무 이상합니다.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도둑 입장에서는 신나는 세상인데 도둑마저도 없습니다. 소를 키우는 곳이 있었는데 소는 있는데 소를 키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로 돌아다녔는데, 개가 사람을 발견하면 엄청난 기세로 달려옵니다. 개가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먹을게 있을까 따라오는 겁니다. 자판기는 모두 매진이 되었습니다. 이발소에 사인이 있는데 그게 켜여서 들어가보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없고 신호등도 변하기는 하지만 누구를 위해 신호등이 점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쪽에서 바다쪽으로 가보니 갑자기 풍경이 바뀝니다. 일상생활과 비일상생활의 경계선 부분, 그것이 츠나미가 온 곳과 오지 않은 곳 경계

선이 쳐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시골이기 때문에 밭이 있고 논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 잔해들이 많습니다. 건물 잔해까지 이해하는데 논에 어선이 몇 대나 누워있습니다. 송전탑 같은 것이 파괴되어 송전탑이 인사하듯 90도 꺾여있습니다. 차가 나무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집 옥상 위에 보트가 올라와 있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바닷가 주차장에는 원래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테트라 보트가 마치 장기라도 둔 듯이 주차장에 널려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자동차의 가드레일 부분에 일본의 묘지에 쓰이는 판대기가 꽂혀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상상해보니 전기도 끊어졌고 휴대폰도 고장났고 결국 pc도 전화기도 전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곧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지고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이 세상 종말이 일어났구나하는 인상이었습니다. 폐허를 걸어다녔는데 꽃이 꽃혀 있었습니다. 개인의 추억과 관련한 물건들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잔해를 치우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옷, 화장품,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한 군데 모여져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불당이나 그림 같은 것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꽃이 꽃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녀온 사람은 아무래도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인데 도시가 공습을 당해 폐허가 된 다음에 사람은 거기서 한 숨을 푹 쉬면서 교회나 절을 재건합니다. 망가진 것을 재건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개인의 추억과 관련한 물건을 모아 꽃을 놓고 급조해 기도할 수 있는 불당을 만들곤 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후쿠시마는 아시다시피 전원공급이 끊어졌습니다. 냉각작업도 스톱되어 있고 쓰나미가 온 다음날부터 용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도쿄전력도 정부도 괜찮다, 안전하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처음부터 최악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전에서 반경 20킬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전부 피난을 갔습니다. 이제 출입금지 지역이 되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경찰, 방위대도 방호복을 입고 수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시체가 수습된 듯 합니다. 방호복은 방사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게다가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에 있는 자크가 걸리면 나뭇가지에 걸리면 구멍이 나고 찢어집니다. 그래도 안 입은것 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입습니다. 최소한 방한효과는 있습니다. 그걸 입고 방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풍경을 보면 예전에 본 것을 상기하면서 예전과 무엇이 비슷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란드레이 타이코프스키 영화중에 스토킨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정부에 의해 출입금지된 지역에 들어간 사람을 스토킨 하는데, 그 지역은 운석이 떨어져서 거기에 특수한 인체에 해가 있는 오염된 지역으로 판정되어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영화한 것입니다. 그 영화가 우선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체르노빌 사건은 그 한참 후의 일입니다. 스토킨을 본 사람은 체르노빌을 예견한 영화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체르노빌도 사고 발생후 한참 걸렸지만, 지금 반경 30킬로 이내는 진입금지 지역입니다. 현재 체르노빌 상황이 후쿠시마와 약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아직 완전 폐허는 아닙니다. 20년전 일이기 때문에 다시 대자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체르노빌에 축구경기장이 있습니다. 숲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해바라기, 나무, 꽃 모두 오염은 되었지만 사람들이 떨어져나간 다음 사람들의 활동에 오히려 방해를 받지 않아 원시림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연의 회복력은 강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텐데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다음에 이 지역에는 풀도 꽃도

안 자랄거라 했지만 몇 년후에 나무와 꽃이 거기서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전부터 화전 농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숲, 나무를 불태우고 거기서 메밀 농작을 합니다. 몇 년 정도 농작을 한 다음 방치를 합니다. 15년 방치를 하면 숲으로 돌아갑니다. 산에서 이런 회복력을 이용하며 농업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있다해도 자연의 회복력은 엄청 강합니다.

하지만 후쿠시마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전 사고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재로 인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복구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후쿠시마에 가서 어떤 미래를 그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는 안전하게 뒤틀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원전은 안전과 모순됩니다. 안전한 원자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는 54개의 원자력 발전소 유니트가 있습니다. 일본전력의 약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침체시키지 않으려는 자본주의적 사람들은 앞으로도 원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원전 운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대체에너지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후쿠시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오염된 위험한 토지에서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도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옮겨사는 것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만난 고령자는 오랫동안 원전 부근에서 농업을 해왔는데 평소대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지만 그 할아버지는 그대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정도의 나이라면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로 돌아가시는지, 수명으로 인해 돌아가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생각하면 앞으로 60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안전한 지역에 이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5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오사카 쪽으로 이주한다해도 4군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전에 근무했던 오사카 긴키대학에 이공학부가 있었습니다. 더 안쪽에 문학부가 있는데 그리로 가려면 반드시 원자로 앞을 지나야 했습니다. 실험용 원자로가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 1개 정도의 조명을 켤 정도입니다만 같은 원리의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원자력의 공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끔찍한 방사능 문제와는 인연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경제계에 계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뉼센스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학가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단기간의 경제효율을 생각해 만든 것입니다. 전력은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발전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었습니다. 화력, 수력, 태양광, 풍력등과 비교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뒤틀수습의 비용 계산은 전혀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저렴하지만, 무언가 일이 터졌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전혀 자본주의적이 아닙니다.

후쿠시마보다 빨리 중단했던 하마오카 제1원전을 보면 뒤틀수습에 걸리는 시기가 30년 정도 될 것이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1천억엔입니다. 그것도 한 기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2기가 되면 2천억엔이 됩니다. 54개를 종합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3조엔 정도 듭니다. 40조원 정도가 되겠지요. 말도 안되는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틀수습을 할 때 비즈니스와 얽혀있습니다. 특수기술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원전

을 하든, 중단하든 엄청난 비용은 들어갑니다. 현재 미국, 프랑스에 대해 안좋은 견해를 갖고 본다면 미래 원자력 대국은 미국과 프랑스입니다. 앞으로 일본이 원전을 계속할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미국과 프랑스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전문가들 지원이 없으면 사후 처리도 못할 것이고, 원전의 중단 조차, 사용후 폐연료봉 처리도 못합니다. 일본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폐전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친구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항공모함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일안보조약이 있어 다행이다, 미국이여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면 미국의 점령체제가 강화되었다고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이럴때 넌센스한 이야기를 하면, 즉 트위터나 블로그에 일장연설을 하면 저 높은 위험한 소설가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하지만 넌센스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킬로는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을 못합니다. 넓은 땅입니다. 이 광대한 땅을 누군가에게 팔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혹은 자본가들한테 팔면 되겠다 그래서 바다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말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람의 계곡의 나우시카같은 곳처럼 만들면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후쿠시마의 케이스와 비교하기 어렵지만 남미의 파타고니아 지역은 자연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 집단이 하나가 되어 땅을 사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개발시키지 않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 후쿠시마에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경제 세계에서 남으로부터 빌린 돈을 안 갚는 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제 세계의 계약은 빌린 돈은 갚아야 합니다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그 땅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으로부터 엄청난 가치를 다 이용해먹고 땅의 가치를 약탈한 것입니다. 경제의 계약원리에 따른다면 그 땅을 오염시킨 자는 땅에 대해 부채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염상태는 지속될 것입니다. 반감기가 긴 것은 영원하다고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죄를 환경에 대해 저지르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고 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시장중심주의같은 약육강식의 원리는 그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경제학자와 이야기해봤더니 더 이상 읽을게 없다고 합니다. 마르크스 경제학 빼고는 말입니다. 원자력 사고가 없어도 언젠가 자본주의는 끝날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포스트 캐피탈리즘의 세계를 어떤 식으로 창조해 나가야 하는지를 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라던지, 인프라라던지 눈에 보이는 것이 파괴가 되었는데 그것이 자연재해인 이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걸 끌고 와서 그 피해에서 어떻게 재건할지 쉽지 않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전쟁도 그렇고 작은 규모의 재난인 충돌사고라던지 주가폭락이라던지 혁명이라던지 국가에 의한 탄압이라던지 이런 대단히 불쾌한,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경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지금 일본 역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둔하기 때문에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전보다 확실히 술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3월 11일 이전에 자신은 꿈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날을 계기로 제가 확 변한건 아닙니다만, 그 날 이전에 생각했던 일이라던지, 제 성격이라던지, 자아

상태는 지금이랑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산업문명 안에서 도시문명을 영위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해서 본인들의 예고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학교, 발전소 같은 인프라가 있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도 각각의 행동에 맞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격 소프트웨어라고 할까요? 사람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다양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보같은 짓을 하는 소철가이지만 어떤 때는 좋은 아빠기도 합니다. 본인의 역할, 취미,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인격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고 그걸 나누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냥한 아빠이고, 자선활동도 하는 좋은 옆집 아저씨였는데 사실은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마귀로 자본주의의 최고봉의 인간이기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중인격, 다중인격인 사회입니다. 큰 재해가 발생하면 더 심한 상태가 되어 드러납니다. 확실하게 이 지진은 예를 들어 기존의 인격 소프트웨어를 파괴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인격 소프트웨어를 버전업해야 한다고 할까요? 다시 인스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인격의 괴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은 마음의 상처라던지 고통에 대한 방어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위기에 빠진 사람이라면 다른 나 자신에 빠져들고 그 쪽으로 도망가거나 희생양인 자기 자신을 만들기도 하고 본인 안에 교체가능한 인격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릴 때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아주 힘든 역경에 있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인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으로 볼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다중인격을 구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상상의 친구, 교체할 수 있는 인격이 필요하고 위기상태에 있는 자아를 구하기 위한 초월적 존재, 그것을 신이라 부르건 초자아라 부르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격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 유태인은 아주 오래기간동안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거듭 해왔습니다. 피지배자로서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아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속에서 늘 자아의 위기를 겪었을 겁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등장해서 살아남는데 유리한 자아시스템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신을 섬기는 유태교입니다. 불합리한 체제를 육성하는데 있어 유일신은 굉장히 유효한 소프트웨어라 생각합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인 신은 엄격합니다. 이유 없이 니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야기하고 철저히 신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기독교도 잘 생각해보면 신기한 종교입니다. 적을 사랑하라, 이 메시지는 엄청납니다. 왜 그렇게 무리를 해야 하나요? 이해가 안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정도로 관용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굉장한 시련을 맞본 다음 그 경험을 내면화해서 적에게 적의를 가지면 악순환이 되니까 큰 관용을 베풀어라는 의미에서 적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은게 중학교 때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유머인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왼쪽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대라는 말 역시 대단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친구가 되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가 있는 후, 천재지변이든 전쟁이든 혁명이든 어쨌거나 큰 위기가 있는 후에 새로운 자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걸 기대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캐피탈리즘 시대에 약속강식이라던지 사람을 밀치고 앞으로 나가는 경쟁이라던지, 정보의 독점이라던지, 사람을 속이고 이득을 얻기 위해 말도 안되는 소문을 퍼뜨린다던지, 그러한 자본주의 하에서 경쟁

체제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해왔던 일 위기 시대에 그런 자본주의 원리는 금방 망할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망하게 하려면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운용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상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본주의의 자유경쟁을 당연시하기보다 서로 도와주면서 삶을 영위하는 원칙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 지진연구나 재난연구를 하는 사람의 연구를 들어보면 사람은 위기시 본능적으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물론 약탈이라던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지켜보면 처음에는 누구나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유는 모르지만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즉 공동체의 원리에 따라 도와주는데 쓸데없는 방해꾼이 끼어듭니다. 국가가 그걸 방해합니다. 국가가 잘못된 정보를 흘려 보내거나 지도자가 착각을 해서 다른 방침을 제창하거나 하면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렇게해서 자발적인 부조의 정신을 시스템이라던지 국가가 방해합니다.

저는 이 지진을 계기로 모든 사람이 서로 도와주면서 살고 있었던 아주 좋은 상호협력의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할 생각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방해를 받기는 합니다만 그건 믿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지진으로 인해 얻은 교훈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포스트 캐피탈리즘의 이미지라는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실험은 시작했습니다. 부흥서점이라는 것인데요. 왜 그런 일을 시작했느냐는 질문에 그때마다 지진피해가 있고 문화활동, 표현활동을 하는 사람은 한가해집니다. 지진이 발생 했을때 라이프라인이 필요해져 물, 전기, 정보, 운수, 수송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문화, 표현활동은 우선순위가 저 뒤입니다. 여러 일과 여러 일정이 취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가해졌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은 쓰지 않으면 못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안받아도 쓰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불안해졌습니다. 한가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책장이 넘어진다던지해서 종이책은 이제 위험하다, 팔아버리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인을 써서 나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170명의 작가가 모여 7천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사인이 있어 프리미엄이 붙어 원하는 사람에게 비싼 가격에 팝니다. 외부 서점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아마존으로부터 시기를 받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혀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영리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했다면 창고회사, 서점관련 저작권 관련해 4달 정도 걸렸을 겁니다. 웹디자인 비용, 계정관련,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등 4백만엔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여해준 작가 모두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서 이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일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하고 싶었느냐 하면요 ~~~

토론: ~